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5 ~ 4/21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6	오대산 정월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불교이야기	자현스님	담양북스
2	꽃잎이 떨어지지 꽃은 지지 않네	법정스님, 원호 여백		7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스님	불광출판사
3	숨만 제대로 쉬면 무병장수 문제없다	수신오도 사유수		8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4	오직 즐거움뿐	박혜상	이중버스	9	한국 큰스님에게 배우는 선의 지혜	윤홍식	봉황동래
5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지승호	운주사	10	기수련과 선 (카르마)	김성갑	운주사



범부(凡夫)는 어떻게 붓다가 되는가?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학술총서시리즈 29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사 학술총서 68권 <유식과 의식의 전환>이 나왔다. 민족사 학술총서시리즈는 1986년 1월에 첫 번째 책인 <한국조계종의 성립사 연구>가 출간된 이후로 꾸준히 불교 전문 학술서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고타마 싯다르타가 붓다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수행을 하면 무엇이 변화하는 것일까? 변화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진짜 힐링을 위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내가 확신하는 '나', 세상을 특정하게 판단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나의 '의식'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책은 유식 사상을 통해 인간의 심리현상과 의식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의식의 전환을 동반한 깨달음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우리들을 이끈다.

이 책 속에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붓다로 존재의 전환을 이룬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범부들이 번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서원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방식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먼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관습의 산물임을 자각하는 순간 '의식'을 탐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내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우월감과 열등감, 충만함과 결핍감은 물론 우리가 믿는 진실조차 이미 굳어져 있는 인식의 틀이 만들어 낸 허구에 불과하다. 범부(凡夫)들은 그런 허구를 '진짜(real)'라고 믿으며 무명과 고통(苦)의 수레바퀴에 걸박된 채 윤회를 거듭한다. 석가족의 왕자였던 고타마 싯다르타도 출가 전에는 무명에 갇혀 있는 한낱 범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출가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싯다르타는 깨달아 붓다가 되었다. 싯다르타는 의식의 전환을 동반한 존재의 전환을 이뤄 낸 것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범부인 고타마 싯다르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자가 됐을까?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저자는 범부에서 성자로 가는 여정을 의식의 전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유식 사상을 연구의 중심 주제로 삼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저자는 유식에서 말하는 '의식의 구조 및 자기 변환'을 분석을 통해 범부의 심리적 현상을 드러내고 보살과 중생의 양극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유식과 유식성의 정의를 고찰하고, 기존의 이해와 달리



유식과 의식의 전환

정문 지음
민족사 펴냄
2만 2천원

유식이란 연생법(緣生法)의 다른 이름이고, 유식성은 연기(緣起)의 다른 이름임을 밝힌다. 또 범부의 의식 상태와 지관의 상태, 성자의 의식 상태의 차이를 해명하고 색신(色身)의 법신(法身)으로의 변환 과정은 결국 육근(六根)의 변화임을 치밀하게 논증해 낸다. 그 과정을 결과로 탄생한 책이 바로 <유식과 의식의 전환>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실천적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인간 '의식'의 변환 과정 탐구가 주제

범부서 성자로의 여정...의식 변환과정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행을 강조

의식의 비밀을 탐구하는 유식 사상

유식 사상이란 기원후 3~4세기경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사상이다. 붓다 사후 불교는 논쟁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부파불교(소승불교)가 부흥했고, 이후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가 발전해 나갔다.

대승불교는 사상적으로 <반야경>에 근거한 '공사상'과 <해심밀경> 등에 근거한 '유식사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후자를 추구한 집단을 가리켜 '유가행파(瑜伽行派)'라고 부른다. 이 유가행파의 사상이 바로 유식 사상이다.

유가행파의 유식 사상은 반야의 공사상을 답습하면서 '식(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탐구해 왔다.

유식 사상은 모든 현상을 식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유가행파는 현재의 의식 상태의 주체는 무시이래의 경험을 습기라는 형태로 저장하고 보관해오는 아뢰야식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해가는 식 작용(識轉變)의 결과물이다.

유식은 '유식무경(唯識無境)'이라는 말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식'은 마음, '경(境)'은 외부 세계란 뜻으로, '오직 식識뿐 경境은 없다'는 유식무경은 마음 밖에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세계는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라일락 향기 대신 우리의 과거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라일락 향기에 대한 이미지에 반응하는 것뿐이다. 유가행파들은 우리의 인식대상도 이런 이미지와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범부는 식이 만들어 낸 이미지를 실체라고 착각하는 무지한 존재들을 가리킨다. 이런 착각으로 인해 범부의 아상(我相)은 더욱 굳건해지고 집착과 망상은 더욱 커진다.

유식 사상은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은 식이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허깨비와 같다고 말한다. 우리는 허깨비 위에서 실체를 집착하고 꿈의 세계를 현실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허깨비 위에서 허깨비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 허깨비 허깨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려는 게 바로 유식 사상이다.

의식은 어떻게 전환되는가?

저자는 과거의 경험(業)이 만들어 낸 인식의 틀을 깨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우선 의식의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지관 수행이다. 지관 수행을 통해 일상 의식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규명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 인격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몸의 활동이나 생리적 기능이 마음을 속박하지만, 부단한 수행이 육근(六根)의 작용방식, 기능을 변화시킨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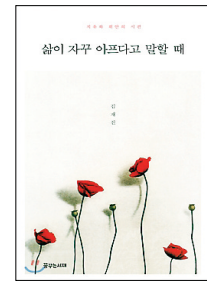
이로써 '고통'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스스로 치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아 중심적 사유를 하던 범부는 지관 수행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룸으로써 모든 생명의 본질성을 보는 지혜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식 사상과 융(C. G. Jung)을 중심으로 발흥한 현대의 분석심리학의 유사성을 분석한다. 유식 사상에서 습관적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하는 진리 정경(문후술)을 필수 조건으로 보았듯이, 분석심리의 꿈 분석에서도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하는 '분석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인의 속삭임

삶이 자주 아프다고 말할때

김재진 지음 | 꿈꾸는서재 펴냄 | 9500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햇볕과 그 사람의 그늘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두운 밤 나란히 걷는 발자국 소리 같이 떨어지지도 도란도란 가지런한 숲길 따라 걸어가려는 것이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픔 속에 가려 있는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다. 창문을 활짝 열고 새 바람 들여놓듯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누군가를>중에서

몸보다 가슴, 가슴보다 영혼이 먼저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 삶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날카로운 깨달음을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시인인 저자. 이력 또한 화려하다. 조선일보와 영남일보 신춘문예, 작가세계 신인상에 소설과 글, 중편소설이 당선되며 오랜 시간 글을 써온 천성 글쟁이다. 불교방송서 PD로 일했던 저자 김재진 시인의 삶은 어찌 보면 평화롭고 어찌 보면 판란곡절 속에 놓여 있다. 삶의 마디마디에서 받은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시편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의 속삭임이 되어준다. 시가 주목 받기 힘든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시를 쓰는 김재진 시인의 시집 <삶이 자주 아프다고 말할 때> 개정 출간에 맞추어 세계적인 작곡가 마이클로페의 'The Parting' 등 치유와 위안을 주는 명곡들이 수록된 동명의 음반이 함께 발매되었다.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위해 노래한다는 시인. 내 안에 있는 진실과 내 안에 있으면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

단한 사랑을 위해 자물쇠 하나 채워놓지 않은 방 안에 있으면서도 방문 열지 못한 채 간혀 있는 여러디여린 사람들을 위해 시를 쓴다는 시인 김재진. 고은 시인은 이런 그를 두고 "그의 시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어떤 가슴인 채 심금 조용히 일렁이게 합니다. 이런 시인이 있어야 세상이 무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마음공부 전문방송인 유나방송을 이끄는 만큼 그의 시는 아름다운 음악, 영상과 함께 동영상으로도 제작돼 사랑받고 있으며, 유튜브에 공개된 그의 시 <토닥토닥>은 15만 건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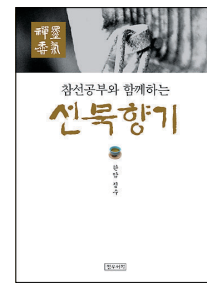
시집 <삶이 자주 아프다고 말할 때> 속에는 저마다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이들을 격려하는 9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인의 속삭임은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우리 시대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준다.

김주일 기자

주옥같은 선문게송 등 소참 범문 90편

선묵향기

한암 정수 | 정우서적 | 2만원



이 책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신구탁 교수의 서문서 언급됐듯이, <선등록>이나 <벽암록> 등 서나 볼 수 없던 주옥같은 선문 게송들을 해설과 함께 붓으로 써놓은, 안겨 3개월 동안 행한 90편의 소참범문으로 이뤄진 참선 교육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서체로 글을 쓰고 범문을 엮은 한암 정수스님은 1957년 충북 오송서 태어나 1973년 불교사 문경 화상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6년 법주사에서 석암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95년 10월 송광사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10안거를 성만했고, 불선사 문경 화상계 입실 건당했으며 2009년 1월 종사법계를 품수했다. 문화정사와 백련사를 창건하고, 백학암과 용문사주지를 역임했다. 2011년 불선사 주지로 취임, 시민선원을 개원해 일반불자들의 참선과 교학을 지도하고 있다. 일찍이 청남 오재봉 선생에게 서예를 사사하였으며, 미국 하와이 대원사에서 특별개인전(2006)과 불선사 육화당개원 특별개인전(2013)을 열었으며, 불선사 건봉사 범종사 등 전국 40여 사찰의 현판과 주련, 그리고 비문을 썼다.

이 책에서는 수십 년 공력 서예 대가의 다양한 서체와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감로 법어를 만날 수 있다. 108서체를 구사하는 서예가 전정우 선생은 이 책을 이렇게 평한다. "전문 서예가라 할지라도 몇 가지 서

체를 구사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거나 혹은 수준 높은 작품을 구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선문(禪門)의 수도자로서 서예를 함께하는 중진, 중견스님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중단의 중진이신 정수 스님만큼 전례해행초(篆隸楷行草)는 물론 호태왕비, 금문, 목간 서체 등 각종 서체를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글에서도 고체와 궁체 그리고 필사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신구탁 교수도 "이 책에는 간 화선을 수십년 실창한 수행자 자신의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안거 90일 동안 펼쳐진 소참범문은 참선공부과정을 면밀히 참고해 편찬했으며 시민선방과 같은 교육기관 교재 또는 참선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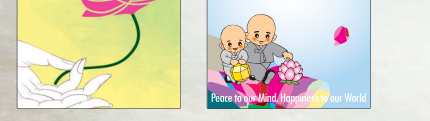
▶ 봉축 리본



▶ 지하철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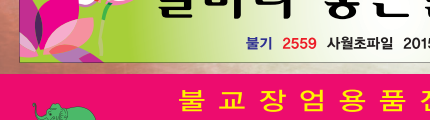
▶ 봉축현수막



▶ 나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 불교장엄용품 전문



▶ 세로거치형 현수막



▶ 종이등표



▶ 종이주름등



▶ 법보시 염주



▶ 오색 합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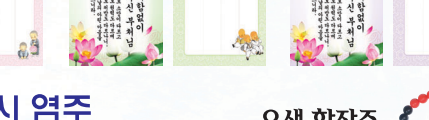
▶ 경면주사 합장주(6mm, 7mm, 8mm)



▶ 오색 108염주(6mm)



▶ 합장주



▶ 경면주사 108염주(6mm, 7mm, 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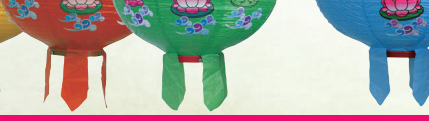
▶ 비닐만일등(연꽃/일반)



▶ 가야비연등 · 가야비연등 6cm 줄등용



▶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 고급 칼리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 가야 궁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 황금등 : 8cm

▶ 지비연등 : 8cm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가 격 할 인 예 의 품 목